

표지

연영석의 노래를 들으면 밥이 떠오른다. 그 밥은 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윤기가 도는 하이얀 쌀밥이 아니다. 잡곡이 듬성듬성 섞여 조금 거친 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한 노동자가 시원하게 등목을 하고 받은 저녁 밥상에 놓인 한 사발의 밥이다. 실제로 그의 노래 중에 <밥>이라는 노래가 있기도 하고, 유난히 먹는 걸 다룬 노래가 많은 탓에 - 그가 처음 만든 노래의 제목은 <라면>이고 첫 음반 [돼지 다이어트]의 머릿곡은 <칼국수와 박카스>다 - 이런 연상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노래는 먹고, 싸는 - 첫 음반 뒤표지에 그려진 거대한 똥을 보라! - 일에서 출발한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사람살이와 세상살이의 바탕이 되듯이 그의 노래도 그러하다. 사람 살아가는 일에 노래의 뿌리가 있다. 그의 노래가 한결같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 살아가는 일에 노래의 뿌리가 있어

그가 민중가요 진영에서 한 사람의 창작자이자 가수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은 조금 이채롭다. 흔히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니며 처음 음악을 접하고 대학 노래모임에서 활동하다 민중가요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이다. 흥대 조소과를 나와 음



연영석의 2집 표지

악과는 별 관계가 없던 그가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록 밴드 '메이데이'에 노랫말을 써주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대학을 마친 92년, 노동미술운동에 뜻을 품은 미술인들과 함께 진보 미술동인 '현실감각'을 만들어 현장을 중심으로 미술운동을 꾸려나가던 그는 93년 노동문화운동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문화예술생산자연합'을 만들어 본격적인 노동문화활동을 시작한다. 이때 소속 단체였던 락 밴드 '메이데이'의 노랫말을 써주면서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1집에 실린 <라면>이란 노래를 만들면서 작곡을 시작하고, 공연을 보러갔다 초대가수가 오지 않는 바람에 얼떨결에 무대에 서게 되면서 가수로 데뷔한다.

1998년 이후 독립레이블인 '맘대로 레이블'을 만들고 첫 노래 모음 [돼지 다이어트]를 내며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했다. 음반을 낸 뒤

에는 IMF를 맞아 서울 역에서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장기 공연을 하며 공연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99 노래판 굿 꽃다지', 소극장 조인트 콘서트 '침침산중' 그리고 전태일 열사 30주년 기념 연극 '연극 전태일'에 객원 배우로 참여했으며 이런 공연 활동 중에 쓴 노래들을 모아 두 번째 음반 [공장]을 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공연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음반을 준비 중이다.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공연

연영석의 음악은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결이 고운 소리를 내지 않는다. 거칠면서 직선적이다. 약간 어눌하고 소박한 그의 발음과 잘 어울린다. 여기에 쉽지만 깊이 있는 노랫말과 단순하면서 인상적인 가락이 만나서 연영석 특유의 질감을 만들어낸다.

홈 레코딩 특유의 톱툰한 음색도 이러한 특징을 잘 살려낸다. 그의 음악을 장르로 굳이 따지자면 일종의 포크, 록 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런 설명이 그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 민중가요의 전형적인 몇몇 스타일에서 자유로우며 이런 독특함이 연영석을 다른 음악인들과 구분 짓는다. 스스로 '구조 조정의 반 민중성과 대중의 경제적 빈곤'을 노래했다고 말하는 첫 노래 모음 [돼지 다이어트]에서부터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다.

모두 6곡이 실린 이 음반에서 <엄마 미안해>, <라면> 같은 노래에서는 농치기 쉬운 일상의 모습을 잘 잡아냈으며 <칼국수와 박카스>, <돼지 다이어트> 등에서는 날카로운 풍자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이 음반은 독

특한 개성을 가진 연영석이라는 새로운 싱어송라이터가 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노래팀들이 민중가요를 주도하던 당시 흐름에서 독특한 한 개인의 목소리는 신선했고 이 첫 노래모음은 새로운 흐름의 선두주자로 주목 받았다.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

2001년에 나온 두 번째 노래모음 [공장]은 완전한 앨범이라기보다 EP에 가까웠던 첫 음반의 아쉬움을 채워주었다. 음반의 편곡과 프로듀싱을 맡은 고명원의 세련된 편곡과 연주가 더해진 음반은 한결 정돈되고 음악의 완성도가 높았다. 간혹 노래의 질감과 편곡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간절히>와 같이 대중적인 호응을 얻은 노래부터 <공장>, <밥>처럼 자기 세계를 더 확실하게 내보이는 노래가 잘 어울리는 수작이었다.



1집 표지

두 번째 음반이 나오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연영석의 세 번째 음반은 가장 기대되는 음반이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독특한 개성, 일관된 실천 활동 등, 작품과 활동의 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의 하나인 연영석이 과연 3년이란 세월 동안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지 궁금한 것이다. 그 사람의 노래를 생각하면 밥이 떠오른다. 멋진 일 아닌가?



안 석 희

유인혁이라는 이름으로 <바위처럼> <우산> <노래만큼 좋은 세상> <이 길의 전부> 등의 노래를 만들었다. 희망의 노래 꽃다지 음악감독을 지냈고 2000년부터는 유정고밴드에서 활동했다. 음악작업을 하는 틈틈이 노래에 대한 글을 연재해 왔다.